

# ‘연패 탈출’ KIA, 위닝시리즈 상승세 있다

## 프로야구 전망대

28~30일 창원 NC전  
내달 1~3일 광주 KT전

주간 타율·ERA 8위 기록  
무너진 투타 조화 살려야

연패 탈출에 성공한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주 주중 KT위즈에 스윙패를 당한 뒤 주말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위닝시리즈(2승 1무)를 기록했다. 그 결과 12승 1무 12패 승률 0.500을 기록, 리그 5위 자리를 유지했다.

프로야구는 선두권을 제외하고 팽팽한 순위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KIA는 4위 삼성라이온즈와 0.5경기 차, 밀요리는 6위 NC다이노스에게 1.0게임차, 공동 7위 한화·두산에게는 2.0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KIA는 이번 주 주중 창원에서 NC와 만난다. 주말에는 광주에서 1위 KT와 3연전을 치른다. 순위 다툼을 하는 팀과 먼저 맞붙는 만큼, 주중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연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순위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재 KIA 타선의 흐름은 좋지 않다. 지난주 경기 기간 팀 타율 0.226으로 리그 8위에 머물렀고,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655로 8위에 그쳤다. 병살타는 9개로 NC(10개)에 이어 가장 많았다. 주자가 나가더라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여기에 부상 약재까지 터졌다.



성영탁

나성범

올러

외인 타자 카스트로는 지난 25일 롯데와의 주말 2차전 수비 과정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에서 빠졌다. 이후 검진한 결과 햄스트링 부분 손상 소견을 받았다. 결국 26일 롯데와의 주말 3차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범호 감독은 “앞으로 재활과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재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부분은 있다.

주장 나성범은 지난주 6경기에서 17타수 6안타 3타점 타율 0.353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이 기간 2루타 3개를 몰아치면서 타격권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김도영은 6경기 24타수 6안타 2홈런 7타점 타율 0.250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타율만 놓고 보면 아

쉬운 점은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큼직한 타구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4일 롯데전에서는 2개의 홈런을 몰아치기도 했다. 그 결과 김도영은 현재까지 8개의 홈런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로운 리드오프 후보로 떠오른 박재현도 주목된다. 박재현은 5일 NC전, 19일 두산전, 26일 롯데전에 1번 타자로 출전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롯데전이다. 그는 이날 데뷔 첫 홈런을 터뜨렸다. 데뷔 첫 홈런이 리드오프 홈런인 경우는 구단 최축이다.

KIA 마운드는 지난 주 평균자책점(ERA) 4.39로 이 부문 리그 8위에 자리했다. 선발진은 평균자책점 6위(3.73)로 나름 선방했으나, 구원진은 8위

(5.25)로 크게 흔들렸다. 최지민, 조상우, 흥민규 등이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새로운 마무리 성영탁은 왼쪽투를 선보이는 중이다. 올 시즌 12경기에서 15이닝을 책임지며 단 1실점에 그쳤다. 평균자책점 0.60의 믿겨 힘든 활약으로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정해영 역시 복귀 후 중간계투로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선발전에서는 올러가 호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롯데전에서는 9이닝 3피안타 2사사구 11탈삼진 무실점으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KIA는 이번 흐름 속에서 주중 NC와 맞붙는다. NC는 현재 11승 13패 승률 0.458로 리그 6위에 위치해 있다. 평균자책점은 3위(4.18)로 KIA

(4.50)을 웃돌고 있지만, 팀 타율은 7위(0.258)로 KIA(0.261)를 밀린다. NC는 라이벌, 권희동, 김휘집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있으나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창원 NC파크에서 만날 NC는 28일 신민혁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NC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복귀해 KT와 3연전을 치른다. KT는 투타 모두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최근 연패로 주춤하던 KIA가 이번 주 6연전에서 다시 연승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바스티안 사웨(케냐)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 풀코스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 마라톤 ‘2시간 벽’ 깬다…케냐 사웨 ‘1:59:30’ 런던마라톤서 세계기록 1분 5초 단축…케젤차도 인류 첫 ‘서브2’

인류가 끝내 마라톤 풀코스의 ‘2시간 벽’을 넘어섰다.

사바스티안 사웨(케냐)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 풀코스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사웨는 켈빈 키프팀(케냐)이 2023년 10월 시카고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2시간 00분35초)을 1분5초 앞당기며, 공식 마라톤 레이스 사상 처음으로 ‘서브2’(2시간 이내 완주)를 달성한 주인공이 됐다.

2위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도 1시간59분41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사웨에 이어 두 번째로 2시간 벽을 깬다. 3위 제이컵 키피리모(우간다) 역시 2시간10분28초를 기록, 종전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쳤다.

사웨는 초반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선두권에서 경쟁자들과 함께 5km 지점을 14분14초에 통과했고, 하프 지점을 1시간10분 29초로 지나며 기록 경신 가능성을 이어갔다.

30km 지점까지 선두권 경쟁을 펼친 사웨는 이후 케젤차와 함께 치고 나가며 우승 경쟁을 양자 구도로 압축했다.

승부는 막판에 갈렸다. 사웨는 결승선을 약 1.7km 남기고 스피드를 걸었다. 케젤차를 따돌린 그는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았고, 마침내 1시간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마라톤 역사를 새로 썼다.

여자부에서도 세계기록이 나왔다. 티지스트 아세파(에티오피아)는 2시간15분 41초로 우승, 자신이 지난해 런던마라톤에서 세운 여자 단독 레이스 세계기록 2시간15분50초를 9초 단축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도로 종목 기록을 남녀가 함께 뛰는 레이스와 여자 선수들만 뛰는 레이스로 구분해 집계한다. 남자 선수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혼성 레이스와 달리, 여자 단독 레이스는 여자 선수들만의 경쟁으로 기록을 인정한다.

혼성 레이스 여자 세계기록은 루스 체프케티(케냐)가 2024년 시카고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10분56초다.

여자부 2위는 헬렌 오버리(케냐·2시간15분 53초), 3위는 조이실린 제프코스케이(케냐·2시간15분55초)가 차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은행 안산, 금빛 활시위…전국양궁선수권 ‘종합우승’

여일부 합계 1384점…70m·50m ‘은’  
순천대 김서하, 여자대학부서 3관왕

2026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전국무대에서 금빛 활시위를 당겼다.

안산은 지난 26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거리별 합계 1384점을 기록, 손서빈(여주시청·1380점)과 임시현(현대모비스·1378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싱글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졌다. 안산은 70m에서 343점을 쏘 임시현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고, 50m에서도 341점으로 손서빈(여주시청·343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60m에서는 4위를 기록하는 등 전 거리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종합우승을 완성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김서하(순천대)가 3관왕에 오르며 존재감을 뽐냈다.

김서하는 50m에서 344점을 기록해 염혜정(경희대·339점), 유승하(계명대·338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30m에서도 358점으



안산은 지난 26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거리별 합계 1384점을 기록, 손서빈(여주시청·1380점)과 임시현(현대모비스·1378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로 최혜미(동서대·356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거리별 합계에서 김서하는 1384점을 기록, 2위 염혜정(1375점)을 9점 차로 따돌리며 여자대학부 최강자로 우뚝 섰다.

광주여대 한유진은 이번 대회 30m에서 354점을 쏘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남자대학부에서는 조민수(조선대)가 값진 동메

달을 획득했다.

조민수는 70m에서 336점을 기록, 김기범(계명대·340점), 지예찬(한국체대·338점)에 이어 김동훈(국립경주대·336점)과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대회는 27~28일 고등부, 29~30일 중등부, 5월 1~2일 초등부(U-12·U-10) 경기로 이어진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나주시청 사이클팀, 대통령기 2년 연속 정상

전국 90개 팀 참가 속 압도적 기량으로 종합우승 차지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팀 위상을 재확인했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사이클연맹과 전남사이클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90개 팀 416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금메달 5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점수 143점을 기록해 109점을 기록한 상주시청을 제치고 여자일반부 정상에 올랐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지난해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까지 2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최강팀의 입지를 굳혔다.

또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장연우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받았으며 금메달 3개를 획득한 나윤



서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올해 나주시청으로 이직한 김도경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팀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